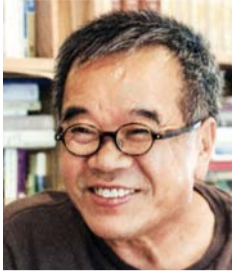


“당신에게 공부란 무엇입니까?”



김용택 시인

“공부란 사람이 되어 가는 길
공부가 사람을 꽃이게 합니다”



나효우 대표

“여행이야말로 가장 멋진 학습
자유로운 공간 볼 수 있는 시간”



조정래 소설가

“손자 세대와도 대화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는 것”

“당신에게 ‘공부’란 무엇입니까?” 누군가 묻는다
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까? 저마다 공부에 대한 관
점, 철학에 따라 답이 다를 것이다.

김용택 시인은 “공부란 사람이 되어 가는 길입니
다. 공부가 사람을 꽃이게 합니다”라고 말했다. 서
재경 아름다운서당 이사장은 “공부가 곧 인생이지
요. 인생은 공부의 연속입니다”라고 답했다.

모두 마음편에 새겨들을 말이다. 특정 분야의 전
문가나 인생을 어느 정도 산 이들의 말에는 깊이와
울림이 있다. 삶의 연륜과 지혜가 드리워져 있기 때
문이다.

기자는 강만길 역사학자(고려대 명예교수)의 답
이 기억에 남는다. 간명하지만 배움의 길을 가는 이
들이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진실에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시대 인생 고수들은 과연 ‘공부’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할까?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
척한 11명의 멘토에게 ‘공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를 책으로 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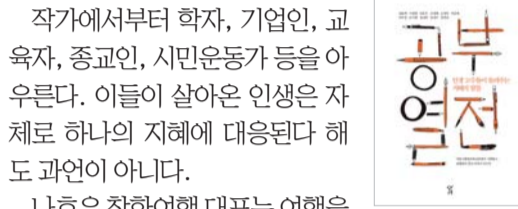
김영철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상임대표가 인터
뷰어로 참여하고 서울시평생교육원이 기획한 ‘공부
열전’은 인생 고수들이 들려주는 지혜의 말을 담았
다.

인터뷰어로 참여한 이들은 말 그대로 각 분야의
인생 고수들이다. 김용택 시인, 서재경 아름다운서
당 이사장,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 조정래 소설가,
도정일 인문학자, 이순재 배우, 이수정 범죄심리학
자, 문국현 한솔섬유 대표, 정성현 새마을운동중앙
회회장, 김성수 전 대한상공회대주교, 강만길 역사
학자가 그들이다.



공부 열전

김용택 외 지음



작가에서부터 학자, 기업인, 교
육자, 종교인, 시민운동가 등을 아
우른다. 이들이 살아온 인생은 자
체로 하나의 지혜에 대응된다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는 여행을
공부에 빚낸다. “여행이야말로 가장 멋진 학습이거
든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요?...자유로운 공간, 다른 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제
공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작가 조정래는 손자 세대와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스로 끝없이 단련하며
손자 세대와도 대화를 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은 털 외롭고,
털 고달프기 위해 도를 닦고 마음을 닦는 셈인데, 인
생의 고달픔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공부”라고 답한다.

인문학자인 도정일 전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은 공감 능력을 꼽는다. 그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며 “인문학의 가장 큰 힘은 타자를
향해 내가 열리고, 내 가슴이 타자를 만나 열리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삶과 공부를 연기에 비유한 이도 있다. 배우 이순
재는 인내심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공부임을
역설한다. 한마디로 “공부는 인내심을 기르는 시간”
이라는 의미다.

이수정 범죄심리학자와 문국현 한솔섬유 대표는
각각 “마음대로 하는 공부야말로 즐거움의 원천”,
“평생학습과 일자리는 생명력과 발전의 원천”이라
고 말한다.

대접받는 것보다 주인공으로 살 것을 주문한 이
도 있다. 정성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은 “어르신
이란 말은 대접받는 말이니 그 말을 거부하고 주인
공으로 살아가지”고 역설한다.

사실 공부는 평생을 걸쳐 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
런 면에서 누구의 삶이나 나름 의미 있고 소중한
다. 김성수 전 대한상공회대주교의 말은 그래서 울림
이 있다.

“하나님은 결코 쓸모없는 사람을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버릴 게 없고 쓸
모없는 게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
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창비교육·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도정일 교수

“민주공화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기본 능력을 계발하는 것”



정성현 회장

“대접받는 말을 거부하고
내 삶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강만길 교수

“진실에 가까워지는 일
그것 말고 다르게 있을 수 없어요”

다산에게 배운다

박석무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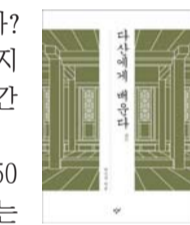
다산 정약용은 명석한 르네상스인인가? 변혁을 꿈꾼 사상가인가?
다산을 조선 후기 박식한 ‘르네상스인’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학문적, 정치적으로 변혁을 꿈꾼 사상가로 보는 책이 발간
됐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펴낸 ‘다산에게 배운다’는 저자가 50
년간 천착해온 다산학 연구의 과정과 결실을 담은 역사이다. 저자는
그동안 정약용에 대한 연구를 ‘다산학’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다산연구소를 설립하고 활발히 운영해왔으며 전문 학술연구부터 다
수의 다산 원전의 번역에 참여했다.

이번 책에는 다산의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고차원적인 학문적 개념들에 이르는 ‘다
산학’ 연구의 전모가 담겨 있다. 특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유학의 실천 근거
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다산은 조선
의 관념적인 성리학 바탕에 정면으로 도전했으며 민의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발전
해야 한다는, 군주제 국가 지식인으로서의 매우 진보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다산 경제학의 핵심은 민(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산학의 대가 위당 정인보는
다산의 경학이 ‘민중적 경학’이라고 평가하는데, 실제 ‘월곡’ ‘담론’ 등 뛰어난 경제학
논문들에서 통치자는 백성을 위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다고 했다.

다산의 삶을 보면 이러한 주장이 단지 이론이나 당위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
다. 다산이 목민관 당시 관아에 항의하려 온 시위대의 주동자를 무죄 판결한 사례나
유배살이 하는 동안 가난한 백성들이 압제받는 현장을 보고 지은 ‘사회시’ 내용은 민
중을 사랑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창비·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네소타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

홍성창 지음

미국 미네소타주립대에는 특별한 철학 수업이 있다. 바로 ‘불교철
학 강의’가 그것. 이 강의가 특별한 이유는 기독교 전통이 강한 미국
북부 미네소타주에서 불교에 대해 접해보지 못한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기 때문이다.

불교에 대해 알지 못하는 미국인 대학생과 서양철학을 전공한 한
국인 불자 교수의 철학 토론이 한편의 책으로 나왔다. 홍성창 교수가
펴낸 ‘미네소타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는 교수와 학생들 간의 불법
(佛法) 토론을 주 내용으로 한다.

불교는 세계의 주요 종교 가운데 하나이지만 종교성을 초월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하는 현대 인류에게 주목받은 지 오래다. 최근에는 명상으로 대표되는 불교 수행이 대
중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저자는 불교철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또한 수업 시작
전 행해지는 짧은 명상 시간을 인상 깊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매시간 수업 시작할 때 나의 지도로 연습해 온 5분 동안의 입정(入定)을
정말 좋아한다는 점이 언제나 나를 반갑고 놀라게 한다. 입정이 너무 좋아 집에서
매일 연습하며 하루의 중요한 일과로 만들었다는 학생도 여럿이다.”

저자는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행의 실천적 부
분만 아니라 불교철학을 이해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철학적 개념
들은 오늘날에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도.

책에는 학생들이 제기한 ‘날카로운’ 질문을 인용하며 난해한 논쟁도 소개한다. 그러
면서 불교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마음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불광출판사·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인슈타인은...

에른스트 페터 피셔 지음, 전대호 옮김

1836년, 찰스 다윈은 진화론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전해지는 비
글호 항해를 마쳤다. 하지만 정작 ‘종의 기원’을 발표한 시기는 그로
부터 23년 후인 1859년. 그가 진화론을 떠올리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뭤까.

다윈이 ‘자연선택’의 개념을 떠올린 곳은 자연이 아니다. 오히려
산업혁명이 한창이었던 19세기 영국의 사회에서 비롯됐다. 사육사
의 가족 선별과정, 공장의 분업화·세분화, 빈민 구제 정책으로 오히
려 더 많은 자식을 낳는 하층민 등 다양한 사회 현상을 지켜본 후 오직 적합한 개체들
만 자식을 낳고 다음 세대에서 그 삶을 반복시킨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삶 속에서 배움 점들을 찾는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생각법을 살펴보는 책 ‘아인슈타
인은 이렇게 말했다’가 출간됐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 등 뛰어
난 업적으로 시대의 아이군이 된 과학자 50명의 삶을 하이델베르크대학의 에른스트
페터 피셔 교수가 엮었다.

저자에 따르면 뛰어난 과학자들은 단순히 ‘천재적인 과학자’에서 그치지 않고 ‘지혜
로운 과학자’의 면모까지 보여준다. 역사에 길이 남을 그들의 업적은 과학자의 지식의
양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 떠올린 통찰을 연구에 투영할 때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책은 크게 6개 장으로 나뉜다. 1장에서는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를 다루고 2장에서
는 수학·정보과학자를 살펴본다. 3장은 자연학자와 생물학자, 4장은 화학자와 의학자
로 채웠다. 5장과 6장은 각각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을 연구한 이들의 삶, 작가와 심리
학자 등 그 밖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실었다.



<해나무·1만58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의 시인 『돌이라는 새』 출판기념회

- 일 시 |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5·18교육관 강당
- 후 원 | (사)서은문명란문학연구소, 시꽃피다
- 구매 문의 | 시산책사 ☎ 02-764-8722



시집 『돌이라는 새』는 조선의 시인의 새로운 시 세계를 보여주기 부족함이 없다. 그의 시를 읽는 일은 신선하고
낯선 경험이자 한국시의 숨은 보석을 만나는 행운과 다른 말이 아니었다. (중략) 우리에게 삶은 매개 어떤 제한에서 자유
롭기 힘든 물음표 같은 속성을 갖는다. 조선의 시인은 이를 뛰어넘어 자유를 향해 열려있는 느낌표로서의 삶을 꿈꾼다.

- 권운(문학평론가) 해설 중에서

시인 조선의 ● 김만중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 시집 『당신,반칙이야』, 『어쩌면쓰라린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모든 빛을 소환하다』 출간

